



2015년 3월 12일 독일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는 2014년 국제분쟁 바로미터 분석자료를 이용, 2014년 국제 분쟁 사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총 424건의 국제 분쟁이 보고되었고 이중 46건은 조직화된 폭력의 사용과 이에 따른 심각한 결과로 인해, 그리고 21건의 경우 전쟁의 수준과 동일한 분쟁으로 간주되어 강도 높은 분쟁 (Highly violent)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난해 기록된 20건의 전쟁과 비교하였을 때 2014년은 훨씬 더 많은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키예프의 마이단 (Maidan) 시위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증가된 긴장상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새 정부와 민병대 사이의 강도 높은 폭력 분쟁 상태를 증가시켰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각각 한 건의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동지역과 머그레브 (Maghreb) 지역 (9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9건) 에서의 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과 머그레브 지역에서의 전쟁은 3건이 증가한 반면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전쟁은 2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럽 지역 이외에서, 국가간 국경을 초월한 강도 높은 분쟁은 초국가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 아프리카의 보코 하람(Boko Haram)과 중동지역의 IS/ISIS들의 호전적인 집단들과 관련되어 분쟁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014년 보코 하람(Boko Haram)의 공격행위는 나이지리아 북동쪽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카메룬과 니제르 지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적어도 10,000명의 사상자와 약 백 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2014년의 경우 2009년 첫 분쟁 이후 가장 폭력적인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일어난 농부들과 목축민들 사이에서의 분쟁은 약 2,500명의 사망 피해자와 300,000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콩고 동쪽 지방에서 일어난 ADF(Allied Democratic Forces)와 콩고, 우간다 정부 사이의 분쟁은 약 1,000명의 사망자로 인해 전쟁과 같은 수준의 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전(前) 셀레카 (former Seleka Alliance) 동맹과 반 발라카(Anti- Balaka) 민병대 사이의 분쟁은 임시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 Bangui 지역은 UN에서 파병된 12,000명의 병력과 EU에서 파견된 1,000의 병력들에서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중앙정부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과 지역 민병대의 도움으로 이슬람 반군 Al- Shabaab에 의해 점령되었던 다수의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수단 지역에서는 남수단 공화국의 대통령 살바 키이르(Salva Kiir)가 이끄는 병력과 전(前) 부통령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사이의 전쟁이



다시 한 번 발발하여 10,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단은 또 다시 세 건의 전쟁이 발발한 유일한 지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동지역과 머그레브 지역에서의 시리아 내전은 ISIS와 그들의 칼리프의 전쟁선포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ISIS는 시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반군의 일부 그리고 북부 쿠르드 지역과의 전쟁에도 개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라크 서부와 서북부의 광범위한 지역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미국주도의 국제군에 맞서 왔습니다. 리비아에서의 정부와 반군의 분쟁은 점점 더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사실상 국가를 분할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Gaza) 지역에서의 분쟁은 ‘Protective Edge’ 작전 기간에 이루어진 잇따른 전투 행위로 인해 전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예멘에서는 알 후티(al-Houthi)가 수도 사나(Sana)까지 진격함으로써 그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과의 지속적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의 임무는 13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탈레반(Tehrik-i-Taliban)의 카라치와 페샤워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대정부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갈등은 잇따른 자무(Jammu) 지역에 대한 박격포 공격으로 약 20,000명의 주민들을 국경 지역에서 강제 이주되는 등 강도 높은 분쟁 수준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2014년 쿠데타를 발생시킨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분쟁은 뒤따른 몇몇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남부와 동부 지역의 상황이 국가의 상황을 불안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돈바스(Donbass) 지역의 자원과 상황을 둘러싼 반군과 정부와의 갈등은 4,8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약 일, 이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의 정부와 마약 카르텔 사이의 전쟁은 이념과 권력을 위한 분쟁이라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찰이 시위 중인 학생들을 납치, 그 학생들은 마약 카르텔에게 넘겨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조직 범죄자들이 관련된 총 9건의 폭력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는 범죄조직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도 높은 수준의 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유일한 국제분쟁 이외에도 HIHK는 총 5개 지역에서 11개의 국가간 위기 상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크라이나 위기상황과 크림반도 합병 문제에 따른 러시아와 미국, NATO, EU 사이의 악화되는 긴장 상태였습니다. 영토와 관련된 국제 분쟁 또한 중



국과 그 주변국가인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간 분쟁은 영토 관련 분쟁(50건) 다음으로 국가간 권력 다툼(35건) 그리고 천연자원, 어업권 분쟁 그리고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HIİK는 또한 166건의 중간 수준의 국가간 갈등을 보고하였습니다. 38건의 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40건의 분리독립 혹은 자치권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119건의 국가 내 권력 투쟁 혹은 정치체제 변혁을 둘러싼 분쟁 등이 2014년 한 해 보고 되었습니다. 국가 내 권력 투쟁 혹은 정치체제 변혁을 둘러싼 분쟁은 주로 사회운동의 형태로 일어났으면 주로 방글라데시, 브라질, 홍콩, 파키스탄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부르키나 파소, 태국에서는 군사개입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 이후 HIİK는 국내 혹은 국제간 세계 정치적 분쟁에 관한 연구조사, 기록 및 평가 수행과 관련된 활동에 매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간되는 '분쟁 바로미터'는 폭력, 비폭력 분쟁에 대한 최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신호는 www.hiik.de에서 2015년 3월 18일 이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락처 : HIİK | Tel.: (+49) 6221 54 31 98 | Mail: info@hiik.de

**Please notice: this announcement is under a strict retention period until
Wednesday, 18th of March 2015, 12 a.m. CET**